교회소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1999년 12월호

# 힝클리 대관장 에콰도르 과야킬의 새로운 성전 헌납

새로운 에콰도르 콰야킬 성전에는 4개의 의식실과 3개의 인봉실이 있다.

최근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58번째 교회 성전을 헌납하고 지역 대회에서 말씀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세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 그리고 남미 북 지역 회장인 칠십인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장로와 남미 북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중인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가 힝클리 대관장을 수행했다.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된 성전 일반 공개 기간 중에 약 108,000명이 성전을 돌아보았고, 8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 거행된 8차례의 헌납 모임에는 약 11,700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저는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성전에 모인 회중 가운데에서 선조 리하이의 후손들을 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혈관에 리하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여 주는 엄청난 반응과 엄청난 관심을 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그들을 위한 구원의 위대한 날이며 또한 그들이 헌신적이고 충실하며 유능한 백성들이란 증거입니다."라고 말씀했다.

헌납식 후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제 우리는 이들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들을 헌납하거나 준공 중에 있는데, 이 성전들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고귀한 형제들에게 인봉의 권능을 부여하며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열성적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씨앗이 비옥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넬슨 장로는 1978년 에콰도르에 첫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된 이래로 교회는 32개의 스테이크로 성장했으며 인구 천만 명이 조금 넘는 나라에서 총 회원수가 15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곳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들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왼쪽:*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에 방문한 힝클리 대관장을 맞이하는 현지의 신권 지도자들. *오른쪽:* 7월 31일에 개최된 과야킬 지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22,000명 이상의 회원들.

장래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이 나라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구심점입니다."라고 넬슨 장로가 말씀했다.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은 4,180㎡(약 1,266평)으로 의식실이 4개 있고 인봉실이 3개 있다.

## 에콰도르의 역사적인 날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 헌납 전날인 7월 31일 저녁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커다란 축구경기장에서 개최된 과야킬 지역 대회 중에 회원들에게 합당하게 생활하여 성전 축복을 받을 기회를 활용하라고 역설했다.

힝클리 대관장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약 22,000명이 모였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 그리고 남미 북 지역 회장인 칠십인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장로와 남미 북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중인 칠십인 지역관리 역원 월트 에프 곤잘레스 장로도 대회에서 말씀했다. 이들 총관리 역원들은 모두 부인과 동반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오늘은 말일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에콰도르를 역사상 첫번째 성전이 헌납된 날로 기억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곳에 모인 말일성도들에게 모두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호소합니다.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의 해의 왕국실은 4,180㎡의 성전 중앙에 위치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58번째로 운영하게 될 성전을 내일 헌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천개의 집회소가 있으며, 58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이 위대한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드릴 수 없는 축복과 기도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맺을 수 없는 성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남·청녀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자신을 지키며 잘 준비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남미에 세워지는 성전 신축 현황에 대해 말씀했다.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신축이 계획되었을 때 "우리는 전 남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헌금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자신의 성전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과야킬 성전을 보았을 때 "그 위용에 압도되었다"고 말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힝클리 대관장님이 가지신 열쇠와 권능에 의해 그 건물은 내일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제이 린] 쇼크로프트 성전장에게 주어진 열쇠로 여러분이 성전에서 받게 될 축복들은 솔크레이크 성전에서 받는 축복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효하며 구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회원들에게 준비되고 합당하게 되며 그들의 생활을 영구히 바꾸도록 격려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비통과 역경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의 기도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각자가 우리의 범법을 회개하고자 할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뻗치십니다."

넬슨 장로는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큰 신앙과 헌신과 십일조와 헌금과 선교사로 봉사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여러분의 선함"에 대하여 감사를 표한 후 "제 주제는 간단합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했다.

*기사제공 : 1999년 8월 7일자 처치뉴스*

## 힝클리 대관장 베네수엘라 회원들에게 연설함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 헌납 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로 여행하여 8월 3일에 컨벤션 센터에 모인 약 5,300명의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회원수를 늘립시다. 모든 개종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쏟도록 합시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팔을 두르고 친구가 되며 그들이 환영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며 그들을 위로 할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개종자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에 새로 들어온 모든 형제와 자매와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따뜻하게 대하라는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이 교회가 성장하리라는 사실에 대해 추호도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남미 전역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있지만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선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이며 존경 받고 공경 받으며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불어나는 회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더욱더 많은 집회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을 받으며 또한 죽음의 장막 너머로 간 사람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기 위해 성전들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 받은 뱅크스 장로

대관장단은 칠십인 회장단이 변경되었음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온 벤 비 뱅크스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칠십인 정원회에서 해임된 역원은 1993년 이래로 칠십인 회장단으로 봉사해온 조 제이 크리스턴슨 장로다.

뱅크스 장로는 1989년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후 1992년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전에 그는 스코트랜드 에딘버러 선교부장, 스테이크장, 3개의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한 바 있다.

칠십인 회장단의 다른 회원들은 엘 알든 포터 장로, 해롤드 지 힐램 장로, 얼 시 팅기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말린 케이 젠슨 장로,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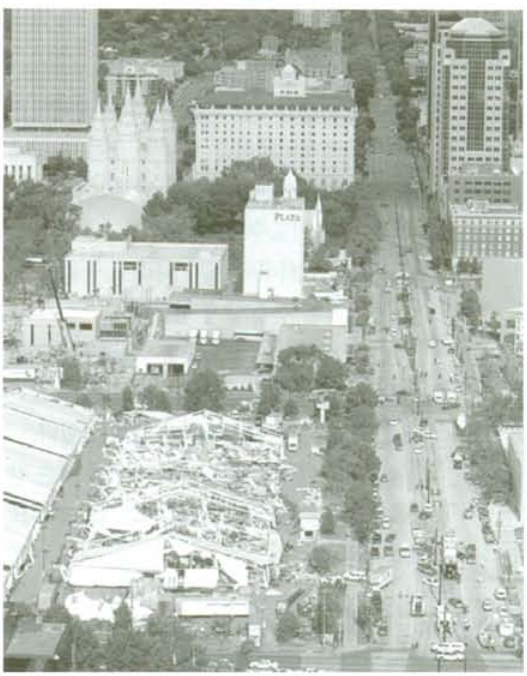
## 좀처럼 발생하지 않던 회오리 돌풍 솔트레이크시티 강타

사라 제인 위버

8월11일에 강력한 돌풍이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 부근을 강타하여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돌풍은 야외 판매 행사장의 천막들을 무너뜨리고, 델타 센터(유타 재즈 농구팀의 본부) 지붕을 군데군데 찢어내고, 한 유명한 호텔의 창문들을 날려 보낸 후, 템플 스퀘어를 스쳐 지나가 교회의 신축 대회관 공사 현장을 강타하여 공사용 발판을 부서뜨리고 건설용 크레인 한 대의 위쪽 부분을 넘어뜨렸다. 대회관 건물에는 경미한 손상이 있었다.

**8월 11일에 회오리 돌풍이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를 강타하여 템플 스퀘어의 바로 서쪽에 설치된 전시용 천막을 쓰러뜨렸다.** 사진 촬영: 개리 빅 콜러, 처치 뉴스 제공



페루의 총영사 조지 이 로만-모레이 (오른쪽)가 그의 아내 지나와 함께 말일성도의 인도주의적 지원 센터를 투어함. 교회 호스팅의 부 책임자가 페루 지도자들을 수행함.

대부분의 부상자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약 50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38세의 라스베가스 사업가, 엘런 크렌디는 사망했다.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니다.

돌풍은 솔트레이크시티 도심지를 강타한 후 동북쪽으로 이동하여 솔트레이크시티 외곽 마을의 가옥 37채를 완파하고 또 다른 가옥 수십 채에 손상을 입혔다.

유타에서는 회오리 돌풍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회오리 돌풍은 F0 에서 F5까지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닥친 회오리 돌풍은 F2급으로 유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것이었다.

*1999년 8월 14일자 처치 뉴스에서 발췌한 기사*

## 교회는 매년 약 400명의 세계 지도자들을 영접함

### 사라 제인 위버

페루의 총영사인 조지 이 로만-모레이는 최근 솔트레이크시티 방문을 통해 교회에 대하여 보다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는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회에서 자기 나라로 물품을 운송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가족 역사 도서관을 방문한 후 그 자리를 나설 때에는 손에 수년간 보지 못했던 부친의 육사 졸업생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영적으로 고양되었다.

로만-모레이 영사는 매년 교회가 영접하는 전세계로부터 온 400명 이상의 국내외에 잘 알려진 정부 관리들 중 한 명이다. 그들은 가족 역사 도서관과 교회 역사 예술 박물관과 인도주의적 지원 센터와 복지 광장 등을 관광한다. 그들은 교회의 요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유산이란 영화를 보고 브리감 영 대학교 캠퍼스와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을 방문하고 대관장단이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분을 만난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라고 데일 엔사인이 말했다. 엔사인 형제는 부인 엘레인과 함께 교회의 귀빈 영접관으로 봉사하도록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엔사인 형제는 내방객들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교회 본부를 떠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같은 높은 목표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와 교회의 시설을 통해 자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매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30개국 언어 가운데 한 언어로 안내해 주는 템플 스퀘어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끄는 곳이라고 엔사인 형제가 말했다.

방문객들은 복지 광장과 인도주의적 지원 센터에서 자립 원리가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다. "인도주의적 지원 센터는 교회에 있어 왕관의 보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손님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로 인해 놀라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군요' 라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예컨대 로만-모레이 영사는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참으로 그곳에서 하는 일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떠났다. 다른 많은 교회의 내방객처럼 그에게도 말일성도의 인도주의적 노력이 그들 조국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기 전에 교회 역원들은 페루의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구호품을 담은 컨테이너 8개를 보냈던 것이다.

"우리 나라는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로만-모레이 영사가 말했다. "페루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주어온 지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좋은 모범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비상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교회 역사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또 하나의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역사] 책을 펼쳤는데 제 부친의 사진이 다른 사진들과 같이 책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로만-모레이 영사가 설명했다. "나는 집에 있는 그 사진을 기억 하지만, 이곳 유타에서 그 사진을 보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엔사인 형제와 자매는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교회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떠날 때에는 그들의 태도가 변하고 그들이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합니다." 하고 엔사인 형제가 말했다.

엔사인 자매는 그처럼 전세계에서 온 훌

뉴멕시코 출신의 하원 의원 톰 유달과 오레곤 출신의 상원 의원 고든 스미스가 중국 대사 리 자오싱과 이야기하고 있다.

룡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태도에도 변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요한 사람들— 국가 원수, 각국의 대통령, 대사, 총영사, 국제적으로 알려진 지도자들, 또한 인도주의자들—이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의 일부라고 엔사인 형제 부부는 생각한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2)

이들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후에 교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엔사인 형제는 어떤 대사를 만났던 것을 회상했다. "그 대사님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고 절약한 돈을 교회에 바치는 금식의 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인도주의적 복지 센터에 왔을 때 센터 책임자에게 봉투를 하나 꺼내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아침을 금식했습니다. 여기에 제 헌금이 있습니다.'" 엔사인 형제는 지도자들이 교회 본부를 방문하면서 참으로 "이해의 가교가 놓인다"고 말했다.

*기사 제공: 1999년 8월 7일자 처치 뉴스*

## 미국 상원의원이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에서 온 대사 영접

오리건 주 출신 상원 의원인 고든 스미스 의원의 자택에서는 최근 레이와 하와이 4현 기타로 환영 연주를 하며 아시아와 환태평양 13개국 출신의 대사들을 맞았다. 워싱턴 디 시 스테이크 포토맥 사우스 와드의 회원인 스미스 형제는 교회와 비 와이유—하와이와 폴리네이시안 컬추럴 센터가 후원하는 행사를 주최하였다.

대사들은 말일성도 의원들 9명과 그 외 저명한 손님들과 함께 하와이식 만찬을 대접 받았다. 식후 청중을 사로잡는 불춤을 포함한 폴리네시안 댄서들의 공연이 있었다.

브리감 영 대학교—하와이 부총장(대학 진흥담당)인 나푸아 베이커 자매는 "모임이 끝날 무렵 귀빈들의 표정에서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행사를 통해 문화적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144명이 참석했던 그 행사에서 많은 우정이 형성되도록 도왔다고 부총장인 베이커 자매가 설명했다. 피지 대사의 아내인 조안나 마시레와는 무희 게이렌 릴리노와의 우정을 새롭게 했다. 마시레와 부인의 할머니가 게이렌이 다닌 피지의 말일성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봉사했었다.

워싱턴 디 시의 교회를 대표한 국제문제 책임자인 앤 산티니는 "저는 모든 귀빈들이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과 건설적이고 기억에 남을 교제를 한 후 스미스 의원의 집을 떠났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제공 : 1999년 7월 24일자 처치 뉴스*

## 교회 음악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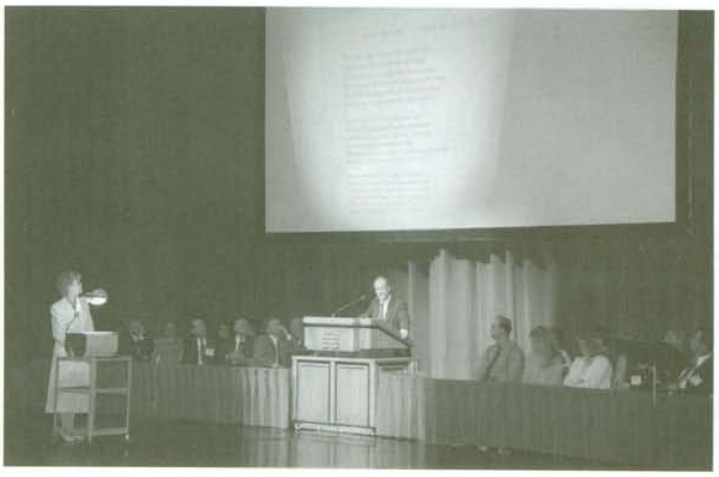
**알 스코트 로이드**

브리감영 대학교 음악 대학이 후원하고 교회 본부 음악 위원회가 지원하는 가운데 8월 3일부터 6일까지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제21차 교회 음악 연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브리감 영 대학교 영어학과장인 존 에스테너는 8월 3일에 기조 연설을 했다. 테너 형제는 자기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온의 찬송가를 부를 때나 또한 자기 자신이 찬송가 가사를 적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머리 위에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교리와 성약 25:12 참조)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면 불과 몇 주전 일요일 저녁에 제 아내 수잔과 저는 10대인 저희 자녀들과 그들의 친구 몇 명이 자연스럽게 피아노 주위에 모였을 때 귀중한 가족애를 느끼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너 형제는 거실의 피아노 옆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곧 그의 아내가 함께 어울려 노래도 하고 반주도 해 주었다. "한 명씩 아이들이 모여들어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딸 아이 한명은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 왔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방안에 임재함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선택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말하게 해 주었고, 한편 멜로디는 현대의 문화에서는 부모와 10대의 자녀가 좀처럼 드러내 놓고 또는 당황스러움 없이 나눌 수 없는 기쁨과 간증의 부드러운 느낌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테너 형제는 어린 시절 남부 캘리포니아



교회 음악에 관한 비 와이 유 연례 워크숍에서 비 와이 유 영어과 과장인 존 에스 테너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에서 유타로의 여행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추억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앉아 그 분들이 흘러간 노래나 "내 구주 살아 계시다"와 "늘 함께 합소서"와 같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듣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부모님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시던 기억을 하면 저의 목이 메어 옵니다."라며 테너 형제가 말을 이었다. " 그런 순간들을 통해 저는 부모님들의 고향인 유타에 대한 사랑과 구세주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추억들입니까! 부모님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 머리위에 부어진 축복들이 얼마나 큽니까!"

찬송가를 사랑하면 가사를 암기하고 가사에 담긴 메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테너 형제가 말했다.

워크숍 중에 교회 본부 음악 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에프 무디 형제는 음악 정책과 절차에 관한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무디 형제는 *교회 지침서*가 음악 정책과 절차에 대한 대답의 참된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관찰을 통하여 교회내의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것에 있어서의 표준 절차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표준 절차의 바탕 위에 신권 지도자들은 필요한 경우 영감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보편적인 규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변경된 양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범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단하고 보편적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 중 일부이며 무디 형제의 답을 요약한 것이다.

**질문:** 지침서에는 전주와 후주는 조용하게 하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항상 조용하게 연주하라는 의미인가?

**답:** 왜 조용히 연주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고요하고 미세한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시끄러운 전주는, 전주가 해야 할 역할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성도들이 마음속의 느낌을 간직하고 갈 수 있도록 후주로 모임의 영을 전하고자 민감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질문:** 회중이 성찬을 취하고 모임을 재개할 사이에 조용한 오르간 간주를 해도 괜찮은가?

**답:** 이 경우는 총관리 역원에 의해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의 예로 사용되어 왔다. 단순한 양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교회 지침서*에 나오는 성찬식을 위한 기본적이고 단순한 개요에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 된다. 11개의 사항 중 이미 여섯 개는 음악과 관련한 사항이다. 음악과 관련한 일곱 째 사항을 추가하지 않도록 하자.

**질문:** 지침서에 성찬식에서 찬송가와 성가만을 불러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가?

**답:** 정책은 이렇다. 찬송가는 예배를 위한 표준 음악이다. 만일 다른 음악을 사용하려면 그것이 찬송가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만일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가 그 와드에서는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따라야 할 표준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 표준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한 태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신권 지도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가 제안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찬식에서 찬송가 보다 나은 곡을 택하려면 훌륭한 음악을 선택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며 찬송가책에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단순하게 부르는 것보다 낫게 편곡된 것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 일요일 모임을 제한하는 공문은 합창 연습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답:** 위 질문은 1999년 2월 11일자 대관장단의 서한을 언급하는 것이다. 서한의 목적이 합창단을 없애기 위한 것인가? 아니다. 그 편지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안식일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원리는 우리가 안식일을 각종 모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찬송가에 나오는 대관장단 머리글에는 교회의 각 와드와 지부가 정기적으로 공연할 합창단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창단이 이따금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많은 와드나 지부의 경우에 있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교회 모임이 끝난 후 아직도 합창 단원이 교회에 있을 때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잘 준비하지 않은 채 연습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짧은 시간에 합창연습을 마치기를 바란다.

*1999년 8월 7일 및 14일 자 처치 뉴스에서 개작한 기사*

# 새벽반의 "힐라맨의 이천 용사"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1998년 12월 8일자 공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세미나리 새벽반에 등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단일 와드나 복수 와드 기준으로 반을 만들어 여러 명의 학생들이 매일 함께 모여 복음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회장단의 권고 사항에 발맞추어 금년 한 해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온 서울 강서 스테이크의 세미나리 새벽반에 지난 10월 28일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일원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와 한국 교회 교육 기구의 박병규 대표가 참석했다. 한 해 동안 충실하게 참여한 청소년들과 교사를 격려한 브라운 장로의 말씀과 그들의 간증을 다루어 보았다.

강서 스테이크의 세미나리 새벽반을 방문하여 말씀하고 있는 브라운 장로와 박병규 종교 교육원 대표.

## 1. 강서 스테이크의 '이천 용사'들

브라운 장로가 참석한 세미나리 새벽반에 자리를 함께 한 길정권 강서 스테이크장은 지역 회장단의 방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 총관리 역원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세미나리를 방문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것은 그 분들이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인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신뢰,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브라운 장로님은 귀중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이 힘들고 수행하기 어려운 세미나리 새벽반을 행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희생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앙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희생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율법은 희생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반에 참석하여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교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머리에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은 희생의 날"(교리와 성약 64:23)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브라운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생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에 시온을 건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반 청소년들과 함께 한 시간은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잘 참고 견디어 준 새벽반의 청소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은 '새벽반의 힐라맨의 이천 용사'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 2. 반원들의 변화

고 3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참석하여 왔던 이세영 자매는 수능 시험 당일에도 변함없이 새벽반에 참석하여 교사는 물론 세미나리 반원들에게도 신선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세영 자매는 준비하여 온 찹쌀떡을 청소년 반원들과 함께 나누었고, 새벽반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나의 기도이자 신성한 특권"이라는 것을 증거했다. 이 자매의 신앙과 모범은 다른 청소년 반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세영 자매뿐 아니라 세미나리에 참석했던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일년간의 새벽반 수업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17년 동안 깨끗하기만 했던 저의 경전이 세미나리 새벽반을 통하여 색연필로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그 만큼이나 주님을 향한 생각과 덕이 더 아름답게 새겨진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구절에 담긴 뜻을 아직 잘 헤아리지 못하지만 한구절 한구절 색칠 할 때마다 저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앙과 희생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성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신앙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

음을 잊지 말지니, 그러므로 신앙을 구하라." (교리와 성약 8:10)

*길원영 자매 (발산 와드)*

"경전을 읽으면 신앙이 자라납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권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라는 가르침을 세미나리 새벽반을 통하여 더욱 뜻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제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제 자신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제게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길의영 형제 (발산 와드)*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매일 세미나리 새벽반에 나갔습니다. 단순히 의지만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세미나리 새벽반은 의지 이상의 것, 즉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미나리 새벽반에 참석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며, 그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선조들이 노래한 가족과 종교와 자유와 나라를 지킨 신앙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힐라맨의 2000용사도, 모로나이 장군도 우리들처럼 세미나리 새벽반을 사랑했었음이 틀림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길창영 형제 (발산 와드)*

얼마 전 저희 세미나리에 에드워드 엘 브라운 장로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경전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릴적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듣고 더욱 꾸준히 세미나리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창기 형제 (발산 와드)*

유난히도 잠이 많은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날인가부터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학교에서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있어 감사하고 저를 아침마다 깨워주시는 엄마와 아빠를 사랑합니다. 또 제가 오지 않으면 그날 전화를 해서 다음날 꼭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미나리는 진정한 신앙을 갖게 해준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모임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다래 자매 (화곡 와드)*

이른 아침 교회로 향할 때면 새벽 세미나리가 이젠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새학년이 시작되고 나서는 세미나리에 계속 참석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웠고, 고 3이라는 핑계로 예습한 번 제대로 한적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반원들의 우정과 교사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만 생각했던 세미나리를 재미있게 느끼게 해주신 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리는 저의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었고, 부족하나마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세영 자매 (화곡 와드)*

새벽이 되면 언제나 엄마는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깜깜해서 밤중 같은 새벽에 언니랑 손을 잡고 교회로 향할 때면 왠지 제가 자랑스럽고 경전을 배우러 간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특히 이번 여름 청소년 대회에서는 세미나리를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퀴즈를 많이 풀고 제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 뿌듯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하루종일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세윤 자매 (화곡 와드)*

저에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이 무척 힘드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항상 깨워주시고, 일어나기 힘들 때는 "준선아, 네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해 주니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많이 주어질 거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반에 참석하여 기도 드렸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준선 형제 (화곡 와드)*

저의 신앙을 길러주신 훌륭한 교사님과 복음의 원리를 함께 배울 친구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세미나리를 참석하면서 '지겹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알지 못하던 교회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표연정 자매 (화곡 와드)*

저는 작년에 시작했던 세미나리를 통해서 일상 생활의 많은 습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상 시간이겠지만, 제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전 읽는 습관이 생겨 난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공부를 하다보니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느낌을 가졌고, 교회에 대한 많은 호기심으로 기도와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신앙이 강화됨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하여도 졸음이 오지 않았고, 성적은 갈수록 향상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신앙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표영훈 형제 (화곡 와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20세기에 있을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성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악에 대항하는 요새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새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정의 밤과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상의 악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는 요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우리들에게 올 때 이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들은 그저 평범한 영들이 아니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장 선택된 영들입니다. 이들은 왕국이 승리할 수 있게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예비된 자들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훈련받고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세미나리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에게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들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스테이크장님께, 저를 믿고 청소년들을 맡겨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충실히 따라준 청소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옥순 자매 (신월 와드)—세미나리 새벽반 교사*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아이들 방에 불이 켜지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세미나리 참석을 위하여 준비를 시작하는 두 아이. 새벽반을 시작한 지 어느덧 일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이제는 싫증이 나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내심 조바심을 쳐보지만 새벽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어 버린 듯 꿋꿋하고 기쁘게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모습은 너무 예쁘고 감사하다.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었어도 한번도 "오늘만 쉬겠어요"라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언제나 그렇게 용기 있고 부지런하게 신앙을 행사해주길 기도한다. 자녀의 올바른 신앙의 행사가 오히려 부모에게 모범이 되었고, 그들보다 앞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긴장감마저 갖게 되었다. 참으로 세미나리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세미나리가 끝나면 임박한 등교 시간 안에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기 위해 매일 아침 차에 시동을 걸고 차안에서 한기를 내쫓으며 대기 중이다. 이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슴 깊이 느낀다.

*김은구 자매(화곡 와드)—표연정자매와 표영훈형제의 어머니*

교사와 반원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신앙과 간증을 수놓아 가는 강서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을 지켜보면서 교회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새천년에 행할 세미나리 구약 과정을 기다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힐라맨의 이천 용사에 못지 않은 강한 신앙과 간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행하면 하기가 쉬워지는 것은 그 일의 본질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일하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이 좌우명처럼, 우리의 청소년들은 희생을 통해 더욱 발전해 갈 것이며, 말일에 태어난 특별한 영으로서 장차 훌륭한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타국에서의 도움

릭스버그 스테이크 / 릭스버그 제9와드
노경례 자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의 기분이 몹시도 착잡했다. 해산달에 맞추어 오시기로 계획했던 친정 어머니는 비자를 취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건강이 별안간 나빠져 오실 수 없었고, 나 또한 미국에 온 지 1년 6개월이 넘어 이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어느 정도 이겨내었는데, 또다시 함께 계시다가 떠날 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혼자서 해 보자고 결심했던 터였다. 그러나 3월인데도 눈보라가 날리는 날씨와 썰렁한 집,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음식, 세 돌이 된 장난꾸러기 성훈이, 하루종일 공부와 일로 인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그 모든 것을 생각하니 새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기분이 기쁘기보다는 슬프기만 했고 첫 아기를 출산하고 난 후의 일들이 기억났다. 뜨끈뜨끈한 온돌방에 새 이불과 잘 정돈된 집, 밝은 햇살, 귀엽고 예쁜 아기 이불, 환영해 주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미역국…,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없다.

이러한 생각으로 힘없이 걸어오고 있을 때, 문득 한 자매가 우리를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아기를 낳으셨나보죠! 축하해요.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드려도 될까요?" 남편과 나는 놀란 얼굴로 서로 쳐다 보았다. 우리는 그 자매가 누군지 모를 뿐더러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이사온 지 며칠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젊은 이웃들이 줄지어 음식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 이웃들과 오가며 눈 인사만 주고 받았을 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선을 베풀고 있었다.

또한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안식일 주일학교 모임에서 "경례가 아기를 낳았는데 음식과 성훈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지원자는 손을 들어 달라."고 광고했는데, 그 말에 70여 명이나 되는 모든 자매들이 손을 들었다고 한다. 그 후 회장단 중 한분이 우리 가족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많은 자매들이 손을 들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뒤에 앉은 자매들은 차례가 가지도 않았지요." 그 후로 매일매일 다른 자매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성훈이를 돌봐 주었다. 그들이 가져오는 음식은 너무도 완벽했다. 모든 음식들이 방금 오븐에서 꺼낸 듯 따뜻했고 남편과 성훈이의 디저트까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장식하고 정성들여 만든 것들이었다. 또한 새 아기에게 필요한 옷과 아기 이불 등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도움의 손길이 끝난 후에도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도움이 더 필요함을 아시고 1주일분의 음식을 큰 바구니에 담아 안고 들어오셨다.

나는 그들의 사랑에 눈물이 났다. 그리고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교회에 가면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오기만 하는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의 손길을 전해 주는 이곳의 회원들이 너무도 고마웠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나에게 이들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나의 신앙과 부족한 사랑에 더 큰 보탬이 되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이곳의 회원들의 모범에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야고보서 2:14~17)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축복과 사랑을 보여 주셨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되리로다."(모로나이서 8:47)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가진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커지고,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모습으로 변하며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약속을 믿는다.

## 광주 스테이크

### 스테이크 대회

지난 11월 6, 7일 양일간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의 감리로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복지 훈련—자립"이란 주제로 열린 평의회 회원들을 위한 토요모임에서 김종열 장로는 평의회의 원리의 핵심인 복지 즉, 자립과 가족선언문에 대해 강조했으며, 일요 총회에서 임종하 스테이크장은 "감사와 참된 신앙과 회원 선교 사업"에 대해 말씀했다. 이 대회에서 여운호, 배수형, 최수현, 최재현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 *(박유미)*

## 마산 스테이크

###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10월 16, 17일 양일간 배태호 스테이크장의 감리로 마산 지역(마산 와드, 창원 와드, 진해 와드, 경화 와드, 남지 지부, 밀양 지부)과 진주 지역(진주 와드, 충무 와드, 거제 지부, 삼천포 지부, 남해 지부)으로 분리하여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마산 지역에 291명, 진주 지역에 224명이 참석하였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대회는 스테이크 분리의 소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배태호 스테이크장은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신권 형제들이 아침 기도에 다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소망을 이루자고 하였다.

### 상호부조회 여성 대회

지난 10월 30일 마산 와드에서 여성 대회 모임을 가졌다. 양옥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을 비롯하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크업 반, 헤어컷 반, 노래 부르기 반으로 나누어 본인이 평소 배우고자 한 반에서 잘 준비된 강사로부터 배우고 정보를 교환하는 계기가 되었다.*(임준덕)*

## 부산 스테이크

###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10월 16, 17일 양일간 양기욱 스테이크장의 감리하에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합창단이 준비한 찬송가 "내 구주 살아계시다"를 들은 후 이순철 형제(스테이크장단 제2보좌)는 말일성도의 가정에서는 기도 소리, 경전 소리, 찬송 소리가 항상 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기욱 스테이크장은 진리는 기도하는 중에, 경전 상고를 통해, 리아호나를 통해, 가정 방문을 통해 늘 손쉽고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

## 부산 종교 교육원

### 바운티풀 축제

지난 10월 30일 부산 수정 와드에서는 이순철 부산 종교 교육원장의 힘찬 개회 선언과 함께 바운티풀 축제가 개최되었다. 대구, 마산, 울산, 포항 등의 많은 성도들과 신권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모임의 말씀 순서에서 양기욱 스테이크장은 힘과 건강과 잠재력과 희망이 가득한 독신성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생활하며 배우고 크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한 1부 순서로 간단한 레크레이션과 부산 서 지방부 형제, 자매들이 준비한 허슬 시범, 온천 와드 전건우 형제의 구연 동화를 들었고 2부에서는 여러 장르의 춤시범과 함께 무도회가 열렸다. *(이희숙)*

## 강서 스테이크

### 상호부조회 음식 품평회 및 재활용품 전시 판매

지난 10월 9일 강서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상호부조회 가을 음식 품평회 및 재활용품 전시 판매가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많은 재활

용품과 비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아 염가로 나누고, 각 와드, 지부에서 정성껏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들도 함께 나누었다. 스테이크 내의 많은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회원 및 구도자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였고, 교회 주변 이웃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 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희)*

### 문화 행사 "가을 한자리"

지난 10월 30일 스테이크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가을 한자리"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문화제 행사는 "훌륭한 활동은 언제나 영을 동반케 한다"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간증을 기초로 독신성인들과 청소년들이 주최가 되어 준비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회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더욱 발전케 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청소년들이 발표한 아카펠라와 멋진 춤은 모임의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하였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 발표된 연극 "사라, 하라신대로 하다"에서 홍기창 형제, 안성원 자매, 홍인환 형제, 백정환 형제가 열연하여 관객들의 열렬한 호평을 받았다. *(성혜영)*

### 경전 퀴즈 대회

지난 10월 16일 청소년들을 위한 세미나리의 교리와 성약 과정 경진 퀴즈 대회가 있었다. 이날의 경전 퀴즈 대회는 일반적인 교회 지식을 알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고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다. 진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은 진리에 대한 강한 이해를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함께 참석한 고문들은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배려했다. 이번 대회는 내년에 있을 서울 서 종교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스테이크 대항 퀴즈 대회를 위해 예선전으로 총 10명의 청소년이 선발되었고, 다시 오는 11월 중순에 최종 선발전을 통하여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진덕)*

## 동대문 스테이크

### 상호부조회 음식 품평회 및 재활용품 전시

지난 10월 23일 용두 와드에서 음식 품평회 및 알뜰 바자회를 열어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출품해 맛과 솜씨를 자랑했으며, 재활용품 바자회를 통해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알뜰한 소비 생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전시하여 비축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전영숙)*

## 서울 동 스테이크

###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및 건강에 관한 특강 행사

지난 10월 9일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및 건강에 관한 특강 행사를 가졌다. 십자수, 홈패션, 뜨개질, 꽃 만들기, 헝겊을 이용한 아기 그림책, 퀼트 인형, 그리고 비축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저장 식품 및 밑반찬 만드는 법 등, 자매들이 1년 동안 준비한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 되었다. 특히 내과 전문의인 최석구 형제의 고혈압에 관한 특강 시간은 정기적인 검사와 식사 습관 등과 더불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 순)*

###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동 스테이크의 새로운 목표는 모든 회원이 구도자와 친구가 될 것과, 완전한 가정 복음 교육, 그리고 성찬식과 주일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9일 서울 광운 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에서 새로 부름받은 이우영 스테이크장의 말씀이다. 아시아 지역 회장단 2보좌인 베이트먼 장로의 감리와 최석구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했던 최석구 형제의 해임과 85년부터 스테이크장단에서 봉사해 오던 이우영 형제의 새로운 스테이크장 지지가 있었다. 말씀 순서에서 지역 대표인 김종열 장로는 최근에 동 스테이크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모두가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라고 독려했고, 베이트먼 장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듯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성구)*

## 서울 서 종교 교육원

### 대학부 평의회 포럼

지난 10월 23일 저녁 서울 서 종교 교육원 평의회에서는 "21세기를 향한 말일성도 청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가졌다. 이 모임은 이준택 서울 북 스테이크장이 감리하고 김영곤 형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연사로는 한국 품질 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주덕영 형제가 초빙되었다. 주덕영 형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미래를 위해서 우리 말일성도 청년들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과 우리들이 준수해야 할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다. 말씀 후에 21세기 자매의 역할에 대한 질문 등 간단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이날 포럼에는 136명이 참여하였다. *(이문주)*

## 서울 서 스테이크

### 노변의 모임

지난 10월 3일, 회원 및 선교사들과 초청된 50여명의 구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브라운 장로의 비디오를 통한 말씀과 최근 개종자들의 바이올린 연주 및 합창에 이어 특별 연사로 나온 하 일(로버트 할리) 형제는 여러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도 제일은 가족이고 제이는 좋은 믿음(니삼 27장 13~16절)이요, 제삼은 행복하게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이라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현정)*

## 수원 스테이크

###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수원 스테이크는 지난 10월 30, 31일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의 감리로 회원 372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용환 스테이크장은 주제 성구(교리와 성약 94:24)를 인용하며 모든 회원이 성전으로 나아오도록 권고했고, 주연사인 브라운 장로는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테이크장단 제2보좌로 구승훈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고등 평의원으로 남경현, 최수원, 서용헌 형제가 부름 받았으며, 대제사로 황재상, 한상희 형제가, 장로로 김명근(중국교포), 김명진 형제가 각각 지지 받았다. *(이상호)*

## 영동 스테이크

###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1999년 10월 24일 서울 서초 구민회관에서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의 감리 하에 서희철 영동 스테이크장의 사회로 80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99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서는 1명의 대제사와 6명의 장로 신권 승진이 있었다. 서희철 스테이크장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했고, 주연사인 브라운 장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정신을 갖고,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영감어린 말씀을 전해 주었다. *(조양호)*

## 인천 스테이크

### 부평 와드 선교 전시회

지난 10월 16, 17일에 부평 와드(감독 양홍규)에서는 '99 선교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가족, 교회 복지 프로그램, 교회 소개의 4개 전시관으로 구분하여 실시된 이 전시회는 회원들의 소개로 온 구도자와 당일 길 전도로 안내된 부평 지역의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회복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윤상근)*

## 전주 스테이크

###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마태복음 18장 14절을 주제 성구로 정한 가운데 이효종 스테이

크장의 감리로 지난 11월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서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6일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는 선교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훈련이 있었고,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는 자립의 중요성과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훈련하였다. 일요일 총회에서 이효종 스테이크장은 개심, 지속적인 활동, 활동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했다. 이번 대회에서 신창덕, 이충성, 박형진, 최선규 형제가 각각 장로로 지지 받았다.

## 비축 프로그램 홍보 전시회

지난 10월 23일 스테이크 상호 부조회 주최로 비축 프로그램 홍보 전시회가 있었다. 요즘과 같이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되는 때에 평소에 준비한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며,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비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임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한 각 와드/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그 동안 비축해 두었던 건조 음식, 비상 품목, 음료 및 다양한 음식을 전시하였고, 그 조리 및 가공법을 배울 수 있었다.

## 노변의 모임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국제 변호사이며 방송인으로 활약하는 로버트 할리 형제를 연사로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로버트 할리 형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중심의 생활과 가족의 소중함, 믿음을 가지고 계명에 충실하였을 때 얻게 되는 행복(니파이이서 2:25)에 대해 말씀했으며, 하나님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선교 사업을 나가서 봉사했던 경험담을 구수하게 이야기하여 청중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진은하)*

# 청주 스테이크

## 스테이크 합창 대회

청주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10월 9일 스테이크 내의 와드/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창 경연 대회가 열렸다. 각 지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더 다양하고 발전된 합창곡들을 준비해서 실력을 발휘하였다. 이날 최우수상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이 아기 누구신고"를 부른 한벌 지부에게 돌아갔다. 특별히 한벌 지부는 복장이나 단원들의 태도, 참여도에서도 단합과 열의가 뛰어나 참여한 타 와드/지부에 모범이 되었다. 2, 3위는 천안 와드와 상당 와드가 각각 차지했다.

## 스테이크 대회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성도들의 합창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며 후반기 청주 스테이크 대회가 시작됨을 알렸다. 갑자기 내려간 기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청주 스테이크 센터로 모여들었고, 그 열기로 건물 안이 가득 찼다. 10월 16일 토요일 신권 대회를 시작으로 스테이크 및 와드, 지부 평의회 역원 훈련 모임, 일요 총회로 이어진 이 모임의 감리는 이정은 청주 스테이크장이 맡았으며, 최근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귀환 선교사들의 간증과 대전 선교부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정은 스테이크장은 "나무는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생산하는데, 우리는 과연 새로운 열매를 생산해 내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 회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예성 와드의 피준섭 형제가 장로로, 복대 와드의 홍병우 형제가 대제사로 각각 지지 받았다.

## 여성 대회

가을이 깊어 가는 토요일 저녁에 청주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여성 대회"를 가졌다. 10월 30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모임은 각 와드, 지부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각자 재능을 발휘해 출품한 작품 전시회와 간단한 활동, 비상시를 위해 준비해 둔 비축 물품 전시회로 이루어졌다. 비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때에 비축 물품 전시를 통해 회원들은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비축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 노변의 모임

지난 10월 31일에 대전 선화 와드에서는 특별한 노변의 모임이 있었다. 전임 대전 선교부장으로서 교회 교육 기구 업무차 방한한 콜 형제 내외를 중부 종교 교육원에서 초대하여 가진 모임이었다. 이 날 모임에는 오랜만에 방문한 콜 형제 내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대전과 청주, 제천, 충주, 울산 등지에서 많은 귀환 선교사와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

특별히 공주 와드의 합창단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합창을 준비하여 모임의 분위기를 더욱 영적으로 북돋아 주었다. 모임이 끝난 후 콜 형제 내외는 함께한 성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들이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 주었다. *(이은숙)*

## 역원 변경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감독: 김정권 (전임자: 최남현)

**서울 동 스테이크**
스테이크장: 이우영 (전임자: 최석구)
제1보좌: 배상기 (전임자: 이우영)
제2보좌: 송병철 (전임자: 황광범)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감독: 김치원 (전임자: 박형준)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감독: 이인기 (전임자: 권일섭)

**인천 스테이크**
용현 와드 감독: 김용구 (전임자: 이태호)

**순천 지방부**
광양 지부 지부장: 양홍조 (전임자: 송두환)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226기 3명 / 서울 성전 선교사 6명

김건열
전주 스테이크
정읍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김원민
부산 선교부
제주 지부
대전 선교부

박소영
동대문 스테이크
태능 와드
부산 선교부

조지 에이치 에퍼슨/이본 에퍼슨
애리조나 시에라 비스타 스테이크
시에라 비스타 제4와드
서울 성전

래리 이 하몬/루이스 시 하몬
유타 오럼 동 스테이크
오차드 제2와드
서울 성전

글렌 알 그린/캐롤 에프 그린
유타 세인트조지 모닝 사이드 스테이크
이글스 랜딩 와드
서울 성전